Mass No. 3 in F minor, WAB 28

- □□

정보

Anton Bruckner: Mass No. 3

in F minor, WAB 28

개요
곡명: Mass No. 3 in F minor, WAB 28
작곡가: Anton Bruckner (1824-1896)
작곡 시기: 1867-1868년. 1868년 9월 9일 첫 버전을 완성한 뒤 1876년, 1877년, 1881-1883년, 1890-1893년에 개정했다.
장르: 네 명의 독창자, 혼성 합창, 관현악, 선택적 오르간을 위한 미사
헌정: Anton Ritter Imhof von Geißlinghof
초연: 1872년 6월 16일, 빈 성 아우구스티누스 교회, Anton Bruckner 지휘
초판: 1894년으로 표시되는 빈 Ludwig Doblinger 판. 일부 서지 목록은 1893-1894년으로 함께 적으며, 초판에는 Josef Schalk의 관현악 수정이 들어갔다.
구조: Kyrie, Gloria, Credo, Sanctus, Benedictus, Agnus Dei의 여섯 전례문
소요 시간: 약 55-65분. Breitkopf & Härtel은 특정 판본의 길이를 약 62분으로 제시한다.
IMSLP: Mass No. 3 in F minor, WAB 28 (Bruckner, Anton)

Wikipedia: Mass No. 3 (Bruckner)

Anton Bruckner의 Mass No. 3 in F minor는 독창자와 혼성 합창, 관현악이 라틴 전례문의 순서를 따라
연주하는 대규모 미사다. Kyrie의 탄원에서 Gloria와 Credo의 선언과 이중 푸가를 거쳐 Sanctus, Benedictus , Agnus Dei로 나아가며, 교향곡에 가까운 음향 규모와 전례적 기도의 방향을 한 작품 안에 겹쳐 놓는다. 여섯 부분은 서로 독립된 곡이면서도 조성, 합창 밀도, 독창자의 역할이 이어져 전체를 하나의 긴 신앙 고백으로 만든다.

소요 시간

일반적인 연주 시간은 약 55-65분이다. Breitkopf & Härtel은 Robert Haas 편집판을 약 62분으로 안내하며, Credo의 길이와 판본, 반복, 템포에 따라 전체 시간은 달라진다.

작곡과 초연

빈 궁정 음악감독 Johannes Herbeck는 Bruckner의 D단조 미사를 높이 평가한 뒤 새 미사를 의뢰했다. Bruckner는 1867년에 F단조 미사를 시작해 이듬해 9월 9일 첫 버전을 마쳤다. Bruckner Online의 연대기록은 각 전례문의 스케치와 총보가 1867년 말부터 1868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1868년 말과 1869년 초 빈에서 열린 초기 리허설은 복잡한 화성, 긴 합창 푸가, 큰 연주 인원 때문에 중단되었다. Carus가 전하는 Herbeck의 평가는 곡이 너무 길고 부르기 어렵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당시 리허설의 난항을 설명하는 일화이지 작품의 최종 길이를 판정하는 말은 아니다. 실제 초연은 거의 4년 뒤에야 열렸다.

1872년 6월 16일 빈 성 아우구스티누스 교회에서 Bruckner가 직접 지휘해 미사를 처음 연주했다. Carus에 따르면 Bruckner는 빈 궁정 오페라의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섭외하고 공연 비용도 부담했다. 이후 궁정 예배당을 비롯한 성당 공연이 이어졌고, 1893년 Schalk 지휘의 연주회장 버전은 이 교회 초연과 별개의 사건으로 소개된다.

여섯 전례문이 만드는 흐름

I. *Kyrie*

F단조의 낮고 조용한 탄원이 미사의 문을 연다. 합창은 한꺼번에 절규하기보다 짧은 호흡을 반복하며 자비를 청하고, *Christe*에서는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독창, 바이올린의 선율이 공동체의 소리에 개인적인 응답을 보탠다. 마지막 *Kyrie*는 점차 힘을 거두어 거의 속삭임처럼 사라진다. 첫 부분의 조용한 경외와 후반의 열정이 같은 탄원 안에서 교대한다.

II. *Gloria*

*Gloria*는 찬양의 선언과 성찰적인 *Qui tollis*를 대비한다. 독창자와 합창이 전례문의 문장을 나누어 부르면서도, 금관과 현악은 밝은 조성의 기둥을 세운다. 마지막 *Amen*은 복잡한 이중 푸가로 확장된다. 대위법은 장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여러 선율이 한 문장으로 결집하는 방식이며, 높은 음역과 반음계가 환희와 긴장을 동시에 만든다.

III. *Credo*

약 20분에 이르는 *Credo*는 작품의 중심축이다. 처음에는 C장조의 신앙 고백을 큰 합창 선언으로 제시하지만, *Et incarnatus est*에서 독창과 합창은 한동안 부드럽고 신비로운 정지를 만든다. *Crucifixus*에서는 베이스와 합창이 애도의 문장을 주고받고, *passus*의 무반주 하강이 소리를 갑자기 가볍게 만든다.

짧은 침묵 뒤 et resurrexit에서 E장조의 빛나는 상승이 솟아오른다 . 뒤의 et expecto resurrectionem에서는 앞서 나온 재료가 되돌아오고 , 마지막 Amen은 Gloria와 마찬가지로 이중 푸가로 닫힌다. Credo의 구조는 전례문을 단순히 낭독하는 대신, 성육신과 수난, 부활의 순서를 대규모 음악적 드라마로 바꾼다.

IV. Sanctus

Sanctus는 앞의 거대한 Credo를 잠시 압축하는 짧고 집중된 합창 환호다. F장조의 장엄한 화음과 또렷한 리듬이 성스러운 공간을 세우며, 긴 푸가 대신 한 문장을 밝고 단단하게 제시한다. 짧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음 Benedictus가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음향의 초점을 다시 맞춘다.

V. Benedictus

A♭장조를 중심으로 한 조용한 도입이 독창자와 합창의 서정적인 교대를 준비한다. 독창진은 개인의 기도처럼 선율을 길게 이어 가고, 합창은 그 선율을 넓은 울림으로 감싼다. American Symphony Orchestra는 이 부분을 Bruckner의 작품 가운데서도 특히 낭만적인 음악이 놓인 공간으로 설명한다. 뒤의 Osanna는 F장조의 합창 환호로 이어지며, 개인적인 목소리와 공동체의 응답을 다시 결합한다.

VI. Agnus Dei
마지막 부분은 Kyrie의 F단조 정서를 되돌린다. miserere의 반복은 처음의 탄원을 더 깊은 음역으로 불러내고 , 독창과 합창은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른 거리에서 말한다. Dona nobis pacem에서는 F장조로 향하지만, 앞서 들은 불안과 애도를 완전히 지우지는 않는다. 평화는 갑작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오래 끌어온 요청이 다른 빛으로 변하는 결론이다.

편성과 오르간의 자리

편성

기본 편성은 다음과 같다.

성악: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독창과 SATB 혼성 합창.
목관: 플루트 2, 오보에 2, B♭·A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호른 4, C 트럼펫 2, 트롬본 3.
타악과 현악: 팀파니, 현악 5부.
오르간: ad libitum. 전곡을 계속 받치는 악기가 아니라, Bruckner Online 기록에 따르면 Gloria의
특정 구간에서 사용된다.

Carus는 원래 관악 파트가 15파트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현대 소편성판에서는 이를 7파트로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한다. 독창과 합창은 그대로 두고 관악만 축소하는 방식이므로 , 소편성판을 원본의 새 개정본과 혼동하지

않는다. 오르간도 판본에 따라 표기와 사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연주자는 선택한 총보에서 ad libitum 지시와 등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현악은 합창의 거대한 선언을 단순히 두껍게 만드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낮은 현악과 금관은 전례문의 중량을 세우고, 목관과 바이올린은 독창자의 짧은 응답을 밝힌다. Credo의 침묵 뒤에 나타나는 금관과 합창의 상승, Agnus Dei의 낮은 탄원 뒤에 열리는 장조의 공간은 편성이 전례문의 의미와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인 순간이다.

개정과 판본의 계보
Bruckner는 1876년과 1877년에 일부를 고쳤고, 1881-1883년에는 특히 Credo와 전체 연주 가능성을 다시 손질했다. 1890-1893년에도 개정이 이어졌다. 1881년 메모에는 Mozart의 Requiem을 살피며 병행 8도 문제와 성부 진행을 검토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작업은 한 번의 완성 뒤에 덧붙인 장식이 아니라, 전례문과 관현악의 균형을 계속 다시 판단한 과정이었다 .

1894년 Doblinger 초판은 Josef Schalk가 1890-1893년에 만든 이른바 Schalk-Fassung이다. Schalk는 목관과 호른을 보강하고 금관의 역할과 여러 연주 지시를 고쳤으며, 이 변경을 Bruckner가 충분히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므로 초판을 Bruckner의 마지막 자필판과 같은 것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

후대 판본은 서로 다른 원고를 선택한다. 1922년 Wöss 판은 Schalk 판의 재출판이고 , 1944년 Robert Haas 판은 1883년 버전을 중심으로 1868년과 1893년 재료를 섞은 혼합판이다 . Leopold Nowak의 1960년대
판은 새 비평 전집의 단계에 속하며, Paul Hawkshaw의 2005년 판은 1883년과 1893년 버전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Carus의 Felix Loy 편집 Urtext는 1893년 최종 자필 계열을 바탕으로 한다. 프로그램이나 음반에 판본명이 적혀 있다면 같은 미사라도 관현악의 밀도와 성부 세부가 달라질 수 있다.

교회와 연주회장 사이
이 미사는 큰 합창과 긴 푸가, 극적인 화성 때문에 연주회장에 더 잘 맞는다는 현대 평론을 낳았다. 그러나 American Symphony Orchestra가 지적하듯 Bruckner는 1893년 연주회장 공연 이전에 성당에서 이 작품을 여덟 차례 연주했다. 전례적 쓰임과 교향곡적 규모는 서로 배타적인 두 선택이 아니라, 작품 안에서 계속 긴장하는 두 방향이다.

처음 들을 때에는 Kyrie의 낮은 탄원이 Gloria의 이중 푸가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 Credo의 침묵과 E장조 상승이 어떤 신앙 문장을 강조하는지 차례로 살피면 좋다. 이어 Benedictus에서 독창자의 선율이 합창과 가까워지는 순간, Agnus Dei에서 F단조의 요청이 F장조의 평화로 바뀌는 순간을 들으면, 이 작품의 교향곡적 규모가 전례문을 가리는 대신 그 의미를 넓히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자료

Bruckner Online, WAB 28 기록

Carus-Verlag, Anton Bruckner's Mass in F minor

- IMSLP, *Mass No. 3 in F minor*, WAB 28
- American Symphony Orchestra, *Mass No. 3 in F minor* □□□□ □□
- Breitkopf & Härtel, *Messe Nr. 3 f-moll WAB 28*
- ChoralWiki/CPDL, *Mass No. 3 in F minor*